

운전대도 접었다 폼다... 현대모비스, 자율주행용 개발 성공

‘폴더블 조향 시스템’ 기술 개발 세계 최초... 국내외 특허 출원중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 선도 박차

현대모비스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7월 뇌파를 이용해 운전자의 컨디션을 감지하는 기술을 선보이는데 이어 이번엔 자율주행 모드, 운전자 주행 모드에 따라 운전대를 접고 펼치는 기술을 공개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자율주행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차량 실내 공간의 디자인 혁신은 물론 보다 넓고 편안한 운전환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모비스는 차량 운전석의 운전대를 필요에 따라 접어서 보이지 않게 수납할 수 있는 ‘폴더블 조향 시스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 폴더블 조향 시스템.

미래 모빌리티 차량에 최적화된 획기적인 기술로 현대모비스가 2년여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 특히 해당 기술은 전세계에서 아직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로, 현재 국내외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다.

폴더블 조향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앞뒤로 최대 25cm까지 움직일 수 있어 운전대를 접을 경우 운전석의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대를 접은 뒤 운전석을 180도 회전해 뒷좌석 승객과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휴식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전자식 조향장치(SBW) 기술을 시스템에 연계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해 시스템 내구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BW는 운전대의 움직임을 전자신호로 변환해 바퀴로 전달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기계적 연결 장치를 제거해 노면의 요철이나 방지턱을 지날 때 진동이 핸들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주차장, 고속도로 등 주행 상황에 따라 핸들 반응성을 자동으로 높이거나 줄여 안정감을 주고 서킷이나 구불구불한 길에서 운전자의 드라이브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센서와 전자제어장치(ECU) 등 핵심 전자부품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중 안전 시스템을 적용해 하나의 장치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정상적인 조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폴더블 조향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 기술을 개발해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 등 미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에

게 선제적으로 기술을 제안해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7월 운전자 뇌파를 측정해 운전자의 컨디션을 확인, 졸음운전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신기술을 공개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세계 최초로 뇌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임브레인’을 개발,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버스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이 기술이 보급되면 버스 등 상용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모비스 최장돈 전무(사시/안전BU장)는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것을 재해석하는 수준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차에 적용될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존 핵심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형 혁신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전세계 감독들, ‘갤S21’으로 단편영화 제작

조 라이트·샤오 감독 등 참여 사용자들에 창의력 영감 전달

전세계 유명 감독들이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를 만들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최근 전세계 유명 영화 감독들과 ‘Filmed #withGalaxy’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세계 유명 영화감독들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화를 제작해 공개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갤럭시 사용자들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감을 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제작된 단편영화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첫번째로는 영국 출신 조 라이트 감독이 진행한 사랑을 찾기 위해 관습에 저항하는 공주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 ‘프린세스 앤 페퍼노스(Princess & Peppernose)’가 지난 6일 ‘제26회 부산 국제영화제(biff)’에서 처음 공개했다.



영화 ‘프린세스 앤 페퍼노스’ 중. /삼성전자

이 영화는 모든 장면을 갤럭시 S21 울트라 5G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작품이다. 인형과 실사가 어우러진 뮤지컬 형식인 이 영화의 다채로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13mm 초광각 렌즈를 적극 활용했다.

조 라이트 감독은 “갤럭시 S21 울트라를 활용한 모든 촬영 과정에서 등장 인물과 스토리를 빠르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면서 “카메라

는 늘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대상을 향해 촬영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됐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샤오 감독이 시골 학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키즈 오브 파라다이스’가 공개될 예정이다. 갤럭시 S21 울트라의 ‘디렉터스 뷰’ 기능으로 3개의 다른 장면을 동시에 촬영하는 등 기교를 활용했다.

샤오 감독은 “갤럭시 S21 울트라로 촬영하면서 큰 카메라로는 담을 수 없는 앵글과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무선마케팅팀장 최승은 전무는 “영상은 가장 강력한 스토리텔링 도구이자 관객과 정서적으로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스튜디오 장비와 많은 예산이 없어도 상상력과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멋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 올레드 TV

/LG전자

LG전자, 6년 연속 호주 ‘최고 TV’ 등극

신뢰도·만족도 등 종합 87점 ‘1위’

LG전자가 6년 연속으로 호주 최고 TV를 지켰다.

LG전자는 호주 소비자 잡지 ‘초이스’에서 진행한 TV 브랜드 종합 평가 결과 ‘최고 TV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초이스가 최고 TV 브랜드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6번째다. ▲TV 성능 ▲고객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브랜드 신뢰도 ▲소비자 만족도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비율 등을 종합 평가받아 전 항목에서 87점으로 2위 업

체가 받은 78점을 크게 앞섰다.

LG 올레드 TV는 성능 평가 점수 86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단점이 없다’는 평가와 화질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스마트 기능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LG전자는 초이스의 평가단이 자체 실시하는 TV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휩쓸었다.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한 LG 올레드 TV를 비롯해 상위 8위까지 모두 LG TV가 차지했다. 앞서 LG 올레드 TV는 초이스가 선정한 ‘스포츠 시청을 위한 최고 TV’와 ‘영화 시청을 위한 최고 스마트 TV’에도 각각 최고 제품으로 꼽힌 바 있다. /김재용 기자

한화, 원익과 암모니아 기반 수소사업 맞손

대규모 수소생산·공급시설 구축키로

㈜한화와 한화임팩트가 원익과 함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사업을 확대한다.

㈜한화와 한화임팩트는 지난 8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원익머티리얼즈·원익홀딩스와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공급에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암모니아는 부피당 수소를 저장하는 밀도가 액화수소보다 높아 수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는 수단으로 주목 받는다. 기존 액화 암모니아 운송 인프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들 4개사는 우선 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추후 대규모 수소 생산·공급 시설을 함께 구축한다. 향후 한화임팩트가 수소가스터빈 기술에 암모니아 개질 수소를 활용하는 등 4개사는 친환경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하는 데도 힘을 모은다.

이들 4개사는 현재 충북 충주 규제자유특구 내 ‘암모니아 기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에 암모니아 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화그룹에서 수소생산분야를 담당하는 ㈜한화 글로벌부문은 해외에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조달해 이를 분해한

후 국내 청정 수소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미국 PSM·네덜란드 토마센에너지인수로 확보한 수소가스터빈 전환 기술을 활용해 수소혼소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원익머티리얼즈와 원익홀딩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특수가스를 다루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각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 고순도 수소 정제장치 등을 개발하며 친환경 에너지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맹운 ㈜한화 글로벌부문 대표는 “앞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클린 암모니아를 조달해 이를 분해한 뒤 국내에 청정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익과 협력을 통해 그린수소의 상용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디스플레이, 협력사 초청 ‘테크포럼’

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들과 만나 미래를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LG디스플레이는 12일부터 15일까지 ‘2021 테크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테크포럼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코로나 이후 디스플레이 변화와 진화, 제품 경쟁력 확보와 기술 혁신을 위한 R&D 전략 및 비전 등을 소통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윈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머크, UDC, 동진세미켄 등 디스플레이 소재 및 부품 각 부

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협력사 23개사를 초청했다. LG디스플레이는 대형 OLED 및 P-OLED 중장기 기술 로드맵, 미래 디스플레이 R&D 전략 등을 공유하며 주요 협력사와 미래핵심기술 관련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행사는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테크포럼 웹진’을 발행하고 시장 및 R&D 방향성 강연, 사전 질의응답 등을 운영해 주요 협력사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